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7월 8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협치인권 담당관실	담 당 자	• 시민인권팀장 이창훈 ☎440-4121 • 담당자 권미정 ☎440-412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지역인권보장체계 확립위해 한자리에

- 7일~8일,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개최 -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인권체계 강화 필요성 공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이하, 전국협의회)을 7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회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역인권업무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지자체별 인권활동을 공유하게 된다. 또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권보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게 된다.

행사 첫날인 7일, 전국협의회에 참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역인권보장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선 8기를 맞은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는 지역인권 보장체계의 강화와 인권정책의 추진,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 며 축사를 했다.

이에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인권영역의 확장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인권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 고 말했다.

그 밖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평등법 의의와 과제’에 대한 특강, 지자체 인권기구 제도화 관련 토론회, 각 시·도 인권위원장이 참석하는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진행됐다.

행사 둘째 날인 8일에는 조효제 성공회대교수의 ‘기후-생태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한 강의를 비롯해, 인천개항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관련사진 >



참고 1

전국광역시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및 인권리더십과정

□ 행사 개요

- 일 정 : 2022. 7. 7.(목) ~ 7. 8.(금) (1박2일)
- 장 소 :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 국가인권위원회
- 참 석 대 상 : 80명 내외
- 주요 내용 : 회의, 토론회, 교육, 현장견학, 만찬 등 네트워크 행사

□ 세부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용	비고
7월 7일(목) <1일차>			
13:00~14:00	60'	참가자 등록 및 체크인	
14:00~14:35	35'	개 회 [소개 및 인사] 참석위원 소개 [환 영 인 사] 국가인권위원장,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기 념 촬 영] [축 하 공 연]	인권위원
14:35~15:25	50'	인권특강 [특강] 평등법 의의와 과제 (홍성수 숙명여대법학부 교수)	국가인권위
15:25~15:35	10'	휴식_공지사항 전달	
15:35~17:10	95'	토 론 [좌장] 박경서 인천광역시 인권위원장 (발표1) 지자체 인권기구 제도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2) 지역인권보장체제 제언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토론] 이선경 강원인권위원장 이재석 대구인권위원장 정귀순 부산인권위원장 최준혁 인천인권위원	발표 (각 20분) 참여토론 (각 7분)
17:10~17:20	10'	휴식_공지사항 전달	
17:20~18:20	60'	협의회 [회의] <시·도 인권위원> 협의회 운영 및 협력방안, 차차기 협의회 의장도시 선정	인천 인권위원장
7월 8일(금) <2일차>			
09:00~10:30	90'	인권강의 [강의] 기후-생태위기와 인권 (조효제 성공회대학교수)	국가인권위
10:30~11:10	40'	이동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인천아트플랫폼)	
11:10~12:10	60'	인천탐방 [현장탐방] 개항장 누리길 탐방 및 해산	